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주지 석해현 합장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칠야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남글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성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매인·남글당

북한산 노선 총리실서 결정

불교계·건설부 이전 못 좁혀 합의 실패

노선재검토위 '우회 우세' 속 활동 마감 회의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총리실 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의 노선 확정을 위한 노선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이하 노선재검토위) 합의안 도출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내리지게 됐다. 그러나 노선재검토위에서 '북한산 관통노선 불가'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국무총리실도 건교부가 주장해 왔던 관통노선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선재검토위는 5일 정부 세종로 청사 810호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의정부 우회노선 △북한산 국립공원 외곽우회노선 △북한산 관통노선 등 3개 노선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 무기명 비밀 투표한 결과 의정부 우회노선 4명, 북한산국립공원 외곽우회노선 2명, 북한산 관통노선 5명으로 나타났다.

노선재검토위는 5일로 45일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치고 회의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담아 조만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합의안 도출은 4월 14일 불교계와 건설교통부가 노선재검토위 합의 당시 각각 5명씩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면서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즉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으나 상반된 입장을 가진 양측에서 동수의 위원을 추천해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했다. 여기에 위원장의 중립성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 불교환경연대는 5일 성명서에서

"5월 31일 위원회 내부 워크숍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반대6, 찬성 4로 결과가 나오자 건설교통부가 위원장을 표결에 참여토록 해 위원회의 파행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조계종 공동대행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산 관통노선 반대 6명, 찬성이 5명으로 나왔다"며 "정부가 앞으로 노선재검토위의 의견을 존중해 북한산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반대 노원·도봉시민연대도 6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산 관통노선은 물론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북한산 국립공원 외곽우회노선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6월의 불심 현충일을 맞아 서울을 동차동 국립 현충원 지장사는 불자 보존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원 묘역에서 '호국영령 천도기원 금강경 독송법회'를 열고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관련기사 7면 사진=박재환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 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0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제천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등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국장급 스님 10여 명이 대학생 법회 지도법사를 맡기로 했다. 최근 친제일로를 걷고 있는 대학생 불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총무원 총무국장 주경스님은 "최근 중무회의에 참석했다가 대학생 포교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는 우리가 나서서 지도법사를 맡아 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대부분의 국장스님들이 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대학생법회를 맡기로 한 스님들은 현재 어느 대학의 지도법사를 맡을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일단은 서울 지역 대학교를 대상으로 활동을 벌이면서 대학생 포교의 전환점을

은 결과를 얻을 경우에는 이같은 제도를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대학이 있는 해당 지역의 교구본사 또는 큰 사찰의 소임자 스님들이 각 대학의 지도법사를 맡아 대학생

요구하고 있어 일 감당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님들이 나서게 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법회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이다.

젊은 불자들이 부딪히다보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거꾸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도 있다. 그런 상호적 관계는 궁극적으로 불교의 '힘'이 될 것이다. 각 지역 교구본사나 큰 사찰의 소임자 스님들도 지금 당장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총무원장 범장크스님 초청

도솔암 극락보전 낙성식 및 천일재·백중천도재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그동안 여러 불자님의 관심 속에 진행됐던 도솔암 극락보전 증진보수가 원만 진행되어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모였었던 아미타부처님의 개금불사도 회향하여 정안식을 하고 격에 맞게 다시 조성한 아미타불후불탱화의 점안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천년을 지나 오늘에 와서 우리의 힘으로 다시 천년을 이어갈 터전을 마련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 도솔암에서는 사부대중 뿐만 아니라 선망부모, 무주 유주 고훈과 함께 회향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천도계를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지장기도도량 도솔암에서 총무원장 범장크스님을 모시고 봉행하는 영가천도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뜻하신 바의 소망이 성취되고 돌아가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함께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 극락전 낙성식 및 점안식 : 2003년 6월 21일(토) 오전 10시
- 백중기도 입재일시 : 2003년 6월 21일(토) 10시
- 백중기도 동 참 비 : 일금 오만원정(영가수에 상관없음)
- 천도기도 입재일시 : 2003년 6월 21일(일) 10시
- 천도기도 동 참 비 : 일금 오십만원 [망축(시덕·친정, 생축)] (기도비는 본납도 가능합니다)
- 문 의 : 전화 063)561-0075, 564-2861 팩스 063)561-4080
- 접수안내 : 천도재 법회에 동참하시는 분은 6월 19일까지 망축 생축 축원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계좌번호 : 농협 521030-51-002482 예금주 : 도솔암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 앞 출발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조계사 앞 출발
- 문의전화 : 이화장 017-221-8778 진연회 02)820-3242, 4689 부산 박길하 011-579-7226 / 대전 이현호 011-409-2702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지장제일기도도량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대불련 40돌... 동문을 찾습니다

그리운 동문찾기·대학생포교 후원캠페인 전개

1963년 창립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지난 40년간 한국불교 최대의 인재산실로 수많은 승·재가 동량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본지는 대불련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와 함께 6월부터 연말까지 특별기획 '그리운 대불련 동문찾기 및 대학생포교 후원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지난 40여 년간 대불련 활동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사회에 진출해 전국 각 분야에서 증견으로 성장한 동문들을 하나로 모아 당시의 구도열정을 되살리고 교계 최대의 인재은행을 만들어 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청년불자의 열정과 구도심으로 불교를 보다 젊게 그리고 사회화하는데 한 몫을 하면서 한국불교계에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불교학생회 감소,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학 불교학생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곳곳에 활동하는 불자학생들을 돕고, 포교기금을 마련하는데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을 육성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명단은 본지에 게재되며, 한국대학

대불련 어제와 오늘 (기획연재)

1963년 창립 이후 40년간 한국불교의 발전과 함께 했던 대불련의 주요 역사, 전국 주요 대학별 불교학생회 소개 및 출신동문들의 활약상, 대불련과 함께 젊음을 바쳤던 동문과 재학생들의 생생한 사연, 그리운 동문 및 은사 찾기의 애절한 사연들이 기획시리즈로 본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63년 창립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추억의 사진, 활동상황을 회고 하면서 그때의 동문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신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조망합니다. 또 대불련 동문들의 현 주소를 밝혀주고, 소재별명, 연락처 등 인터넷은 사연도 소개합니다. 사연은 대불련 동문회와 본사 사이트에서 공동으로 접수받습니다.

공동주최: 대불련 총동문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현대불교신문사

간화선 중심 수행지침서 보급

상설행자교육원·중앙연수원 2006년 완공

31대 종책과제 발표

2006년에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 수행 지침서가 발간·보급된다. 또 조계종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설행자교육원과 중앙연수원이 2006년 하반기에 건립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스님은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1대 총무원 종책 기조 및 31대 중점 종책 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인터뷰 3면

31대 중점 종책 과제에는 간화선 중심의 수행중흥 전략, 상설행자교육원 및 중앙연수원 건립, 승려복지 방안 수립 등 조계종의 당면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발표된 종책에 따르면 조계종은 2006년까지 각 수행법 및 간화선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보급한다. 또 상설행자교육원·중앙연수원·불교종합사회복지센터 설립 및 승려복지방안 수립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별 추진위를 구성해 2005~2006년 사업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